

금속노조, 11.21 총파업 성사

109개 사업장, 13만 명 파업 참가... “재벌개혁·노동법 개정, 조선업 구조조정 저지” 목소리 높여

금속노조가 위력 있는 총파업을 성사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중공업지부 등 전국 109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128,277 명이 11.21 총파업에 참여했다.

11월 21일 전국에서 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은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참가해 ‘재벌개혁’과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고, ‘광주형 나쁜 일자리 사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경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서울 이외 14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적폐 청산과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16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핵심 요구로 ▲탄력근로제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 ▲사법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확대 ▲비정규직 철폐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사회 대개혁 쟁취를 내걸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역사는 11.21 총파업을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모든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일손을 놓고 투쟁한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라고 의미를 새겼다.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 삼권을 봉쇄하는 노동법 전면 개정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약속한 국정과제를 책임져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국회에 ‘반값 세비’를 제안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에게 반값 임금을 주기 전에 국회의원부터 반값 세비를 받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재벌 개혁과 노동법 개정, 피눈물 나는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제대로 조직해 싸우겠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몇 번이라도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라며 결의를 높였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늑대 정권을 몰아냈더니 여우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보건의료노조는 “탄력근로 기간이 늘면 이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은 더 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는 늘지 않게 된다”라며 노동 시간 특례 폐지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며 제대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250만 특수 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 폐기’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총파업 서울·경기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비정규직’, ‘광주형 나쁜 일자리’, ‘노동 약법’, ‘노동 적폐’라고 쓴 조형물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총파업대회를 마쳤다.

“박근혜보다 더 나쁜 문재인 정권”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울산지부 총파업 결행 ... “광주형 일자리·탄력근로제 기간연장 저지 투쟁으로”

민주노총 11.21 총파업에 나선 3,000명의 울산 노동자들이 11월 21일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광주형 일자리 저지, 탄력근로제 확대반대, 구조조정 저지, 재벌 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 사회 대개혁 11.21 울산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강수열 울산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오늘 사회자께서 조직화 사업에 최대의 성과를 낸 울산지부라고 소개했는데, 울산지부가 잘해서 조직화 사업이 잘된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해놓고 후속 조치로 상여금, 식대 등을 포함해 버리니 많은 부품사 들이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동지들의 힘으로 이뤘다. 전국에서 16만 조합원이 총파업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전국의 총파업 상황을 알렸다.

윤한섭 본부장은 “울산의 4만 5천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총파업에 함께 하지 못한 조직은 확대간부 파업 등을 벌이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은 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역사를 바꾸는 정치 총파업을 성공시켰다”라고 선언했다.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얼마 전 KBS에서 현대중공업 자본의 노조파괴문건을 폭로했다”라며 “현대중공업은 북한의 5호 담당제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자본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분노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지금 현대중공업 40%의 조합원이 공황 상태에 노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있다. 4년 동안 구조조정 시달리는데 어떻게 멀쩡하겠나”라

며 “단협 해지에 맞선 고강알루미늄 동지들, 광주형 일자리 저지 투쟁 중인 현대차 동지들 함께 모여 투쟁하자. 현대중공업지부도 구조조정과 노조 말살 정책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투쟁사에서 “우리 울산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단호하게 일손을 멈추고 태화강역 광장에 모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요즘 울산의 민심이 ‘이번만큼은 파업을 꼭 파업해서라도 제발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광주에 10만대 해주면 대구도 해줘야 하고 대전도 10만대, 군산도 10만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공중분해 해서 전국에 10만대씩 나눠주지 않으면 불매운동으로 번질 것이다. 이렇듯 광주형 일자리는 정치 포퓰리즘과 지역감정의 망령을 자극해 대한민국의 경제 파탄과 자동차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기에 막아내기 위한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결의했다.

되찾고자 울산지부에 문의하고 가입해 조직된 것이다. 울산지부는 이제 조직화 사업 준비가 되어있으니 이 자리에 개별단위로 참가한 동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울산지부의 문을 두드려 달라”라고 밝혔다.

울산 총파업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투쟁 결의문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외친 촛불혁명의 요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울산 노동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 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온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력투쟁 전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 완화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더큰 규모의 2, 3차 총파업 결의 ▲적폐 청산과 재벌 체제 철폐를 위해 농민, 빈민, 영세자영업자, 청년 등 민중과 연대하여 사회 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했다.

총파업 울산대회 본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태화강역 광장에서 울산 현대백화점까지 행진한 후 대회를 마쳤다.

“문재인 정권에 전면 투쟁 선포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총파업대회 ... “노동개악 강행 준비 12월 정기국회 투쟁으로 맞서야”

민주노총이 11월 21일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외치며 전국 총파업대회를 벌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충남 천안시 아우리 시내 마 앞에서 11.21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노조 충남

지부 조합원 2,000명을 포함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소속 조합원 7,000여 명이 총파업대회에 참가했다.

조합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 ▲제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후 빈곤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요구했다.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 때리기에 청와대를 포함해 여야가 따로 없이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왜 파업하는지는 애길 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노총은 교사, 공무원,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용민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역사다.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인데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정



책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책무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오늘 총파업은 정권에 맞서 전면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투쟁사업장들이 대회 연단에 연대를 호소했다. 정유현 현담산업지회 복지부장은 “일본 아이산 자본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LAB파트너스라는 로펌을 고용해 현담산업지회 노조 파괴에 나섰다”라며 “경영진이 로펌에 거액의 돈을 주면서, 현담산업 노동자의 말은 듣지 않고 있다. 우리는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기한 유성기업 아산지회 부지회장은 노조파괴 중단을 요구하며 본사 점점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기한 부지회장은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청와대, 검찰, 경찰, 현대차 재벌이 한통속으로 나섰다”라며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승리할 수 있다. 함께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차광호 파인텍지회장은 “노동자와 약속을 어긴 스타플렉스 김세권에

맞서 다섯 명의 조합원이 싸우고 있다. 파인텍 투쟁은 작은 노동조합을 쟁길 수 없는 법에 항의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끝까지 응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충남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노동개악 강행을 준비하는 12월 정기국회 대응 투쟁을 결의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개악만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철폐 등 정부가 준비하는 노동개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라며 “노동개악을 막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 삼권 보장을 위해 11월 총파업을 넘어, 12월 국회 투쟁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조합원들은 총파업대회를 마무리하며 ‘재벌적폐’, ‘비정규직’, ‘노조파괴’를 상징하는 관을 불태웠다.